

아토피 질환의 ‘한국적’ 탄생과 부상 : 대중적 지식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 정*

이 논문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한국적’인 이해와 대응을 낳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특이면역성 질환 아토피는 외국의 경우에 ‘환경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토피는 ‘환경호르몬’ 등의 위험요소들과 결부되며 대표적 환경병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아토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전예방원칙과, 매체중심이 아닌 수용자중심의 환경오염 관리라는 전향적 원칙을 내세운 2008년의 환경보건법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이 규제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지식적·정치적 활동의 역할을 살펴본다. ‘아토피 = 환경병’으로 아토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토피 아이들을 둔 아토피 엄마들이다. 이들은 의학과 독성학 등 과학계의 성과는 물론 일본의 ‘아토피 아이, 지구의 아이’와 같은 환자조직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이용, 대중적 호소력을 발휘한 ‘아토피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전용하는 한편, 한의학계, 생협, 민노당 등과도 지식·정치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환경보건법이라는 성과를 내게 된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 ‘대중’이라는 주체가 형성되어가는 역사성과 사회적 이슈 형성의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돌린다. 이러한 연구는 위험규제나 정책연구 등에 역사적 역동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주제어】 아토피 질환, 대중적 지식활동, 위험규제, 환경위험

† Carcinogens, Mutagens, Reproductive Toxicants 라는 학회에 초청해 주어, 이 논문을 완성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 준 Soraya Boudia와 Natalie Jas, 초고를 완독하시고 방향설정과 구성에 도움을 주신 홍성욱선생님, 백영경선생님, Helen Curry, 적절한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뷰로 도움을 주신 박명숙님과 논문완성까지 큰 도움을 주셨던 임종태선생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전자우편: jung.km.lee@gmail.com

1. 정책과정에서 대중적 지식활동의 역할

성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벌써 상당한 환경운동가이다. 몇 년 간 아토피 피부염(이하 아토피로 축약)을 심하게 앓은 덕분이라는 것이 아들과 함께 환경운동가가 되어버린 어머니 박명숙의 설명이다. 성진이는 또래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가공식품 대신 무덤덤한, 어른들도 그리 달가워 앓는 유기농 자연식당을 병이 낫은 후에도 기꺼이 먹어준다고 한다. '환경호르몬' 성분의 농약으로 키운 음식들이 자신의 아토피와 관계가 있었다는 믿음이 그를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성진이는 전자제품이 사용 후에도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을 보면 냉큼 뽑고 다녀서 동생에게 '뽑기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다른 점에서도 생활 속 환경보호에 열심이고,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를 알리는 시위에도 앞장서서 참여하며, 2008년 여름을 달구었던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도 참가했다(박명숙, 2008; 2010).

이런 성진이의 아토피 피부염 앓기는 정말 유별나다. 아토피를 환경문제와 연결시켜 생활 속의 '환경운동가'가 된 적극성과 아이답지 않은 진지함도 그렇지만, 그의 경험은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별난 '한국적'인 경험이 된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국제 의학계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과 아토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고 아토피의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아토피를 대표적 환경병으로 인식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또한 요즘의 아토피 관련 논의들에서는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성진이가 여전히 신경 쓰고 있는 '환경호르몬'도 그의 아토피 경험을 특별히 '한국적'인 것으로 만든다. 내분비계장애 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에 대한 별칭이랄 수 있는 이 '환경호르몬'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적 아토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에도 당연히 특수성이 있다. 별도의 '아토피 산업'을 이룰 만큼이나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쏟아져 나왔고, 2008년에는 아토피를 염두에 둔 환경보건법도 제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한국사회에서의 아토피의 탄생과 부상,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분석한다. 이 접근은 외국의 상황에 대한 대칭적 병행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연구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해외의 상황에 견주어 한국의 상황을 비추보는 비교적 관점에 기대어 기존 관련연구에서 설명되지 않고 당연시 되어왔던 점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노력이다. 우선 아토피가 환경의 악화로 인해 생겨난 환경병의 대표적 예라는 한국사회의 명백한 합의가 설명을 요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과 수용체중심관리라는 전향적 원칙을 내건 환경보건법이 오히려 환경선진국들보다 앞서 탄생했다는 사실과 이 법안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규제 방침을 포함해 명백히 아토피 어린이를 주요 보호대상으로 삼은 사정도 이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아토피에 대한 이전의 논의들은 대개 아토피의 증가가 전반적인 환경의 악화 탓이라는 설명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듯 아토피를 '환경병'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아토피 사례를 근골격질환 사례와 비교 분석한 한재각·장영배(2009)의 최근 연구도 그런 예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이나 환경보건법(2008) 같은 정책들이 "아토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설명이 필요한 사실로 다루지 않았다. 아토피가 환경보건의 대표적 문제였음을 받아들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아토피가 환경병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아토피가 환경문제의 상징으로 만들어지는 데 쏟아진 다양한 노력과 그 노력에 힘을 더해 준 다양한 역사적 우연은 그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사례에서 사회운동 형태의 시민참여는 정책 형성에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한재각·장영배, 2009: 9, 15).

그런데 대개의 과학기술 정책연구가 그러하듯 이렇게 정책 입안과정에 초

점을 맞추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정책·환경보건 전문가가 아토피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주도하고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제도적 과정에 시민들이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통로도 제한적이라는 이들의 지적도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취할 비교적 시각을 도입하면 이런 평가는 아토피 정책의 형성을 환경보건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가 이에 대한 개입을 시작한 제도적 과정 이후부터 검토한 전략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난다. 이 논문은 연구의 기점을 앞당겨 아토피 문제가 생겨나는 역사적 과정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연구의 기점을 앞당기면 이후의 정책적 대응이 얼마나 문제가 형성된 방식에 좌우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형성과정에서 특히 주효했던 시민들의 적극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한 사회의 정책적 대응은 그 문제가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토피의 사회문제화도 자연 발생적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이 확대된 결과는 아니었다. 아토피 발병률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드문 이웃 대만이나 중국 정도만 비교해도 이 점은 쉽게 드러난다. 일부 지역의 역학 조사에서는 20% 정도의 발병률을 보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Williams et al., 1999).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아토피가 환경문제의 상징이 된 점은 더 놀라운 일이다. 첫째로는 캐나다처럼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아토피 발병률이 더 높으며 의외로 중국처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앓는 나라의 아토피 발병률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OECD, 2004; Williams et. al., 1999). 환경오염의 심각도와 아토피는 전혀 비례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둘째는 아토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학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토피의 유전적 소인에는 합의를 보이지만 환경요소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는 아토피가 환경병이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특수한 요소에 의해 환경병이라는 '왜곡된' 관념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회구성주의'의 축적된 성과가 보여주듯 질병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대한 사실도 다른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례는 단지 '아토피 = 환경병'이라는 한국적 등식을 만들어낸 아토피 환자와 아토피 부모들, 한의학계와 환경운동가 같은 대안적 전문가들의 복잡한 '사회적 지식활동'을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지식활동'과의 긴장관계 속에 놓고 대칭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런 긴장관계 속에 탄생하게 된 '아토피 = 환경병' 등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환경보건법과 같은 정책적 대응에 결정적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런 지식생산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역할은 재평가가 필요해진다. 이들이 구성해 낸 지식이 정책적 대응을 불러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경보건법의 내용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들의 역할을 재평가할 이유를 더욱 강하게 한다. '시민'은 민주제도의 한 추상적 요소가 아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나가는, 다양한 지향과 정치성을 가진 역사적 집단인 시민들이 정책형성과정에 보여주는 적극적 역할을 아토피의 예를 통해 보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진의 아토피 경험을 설명해 줄 '지식활동(knowledge practice)'과 그 새로운 인식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동력을 주는 정치적 역학을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지식활동'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구성하게 되는 다양한 이론·서사를 생산해 내는 사회적 활동이다. 우선 성진이 분명 어떤 지식을 매개로 아토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했음을 생각하면 지식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성진은 지식이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환경과 아토피의 연관관계, 토피와 유기농 식품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아토피를 이해하게 됐던 것이다. 이 논문이 과학적 전문가 집단의 지식활동을 중심에 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대신, 대중과 대안 전문가 집단을 기성 전문가 집단과 동등하게 지식활동의 주체로 놓고 분

석하는 것 또한, '시민적 인식론(civic epistemology)' (Jasanoff, 2005) 혹은 '아래로부터의 지식생산 활동(knowledge practices from below)' (Murphy, 2006) 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될 지식생산 활동은 다음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의학전문가들의 활동, 둘째는 한의사를 주로 한 대안 전문가들의 활동, 세 번째는 아토피 환자와 부모, 특히 '아토피 엄마'들의 활동이다. 이 세 집단이 수행한 지식생산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이 연구는 지역성(local)/세계성(global)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거쳤고 상이한 사회집단을 이루는 의학전문가, 대안전문가, 아토피 엄마들이 자신의 지식활동에 서로 다른 도구, 방법, 목적과 검증절차를 가지는 것도 분명한 일이지만 더 뚜렷한 차이는 이들이 스스로의 연구 결과를 지역성/세계성의 긴장관계 속에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에서 나타났다. 각기 '세계적', '토착적', '생활밀착' 형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세 집단의 지식활동은 향후 정치 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갈등과 연대를 구성하고 결국 '아토피 = 환경병'이라는 특정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 시대의 각 지역의 삶에서 드러나는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긴장관계는 환경보건법 입법 과정의 정치적 역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 기여하는 집단은 언론, 환경·여성단체, 정책연구소 등 더 다양하지만, 이 논문은 유기농 생산자협동조합, 이 시기 등장한 정당인 민주노동당, 정부 내의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부를 그 핵심 주체로 보고 살펴본다. 이 세 집단도 그들의 정치 활동과 수사에 자신들의 활동을 둘러싼 세계화된 세계라는 거대한 맥락에 대한 의식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 '한국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세계화 속에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추구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역설적 상황은 자사노프(Sheila Jasanoff)가 엮어낸 국제적 환경 정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사노프는 지역 문화의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세계화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화 과정이 “신속하고도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성의 재발견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Jasanoff, 2004: 16). 아토피를 통해 시민의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이 논문은 이런 지역성/세계성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통찰에 덧붙여 이렇게 재발견되는 지역성이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새로운 얼굴을 갖고 늘 재구성되고 있는지도 드러내고자 한다.

2. '환경호르몬'의 등장과 세계적 위협의 지역적 발현

'환경호르몬'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활동들을 검토해보기 전에 우선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어떻게 '환경호르몬'이란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미를 얻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세계적인 위험요소이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한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의미를 갖게 될 때 단순한 사실(matters of fact)이 아닌 문제(matters of concern)로, 더 나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환경적 위험요소, 예를 들어 방사성 낙진이나 유독성 황사 같은 것은 국경도 계급도 무시하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위험시대에 만연한 다양한 위험요소 중 어떠한 것이 의미를 얻게 될 것인지는 지역적·문화적 편차를 보인다(Beck, 1992; 1995). '환경호르몬'의 사례는 특히 세계에 편재하는 환경위험도 일종의 '문화적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일종의 유형화 절차를 거쳐야만 이질적 문화를 갖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 진정으로 존재하게 됨을 보여준다. 즉 인터넷이나 CNN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중요한 뉴스가 세계로 동시에 '전파'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 무서운 화학물질의 작용이 유럽 각국과 미국을 놀라게 한 1990년대 초반보다 한참 뒤였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마치 생물학적 호르몬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내분

비계를 혼돈시키는 일군의 화학물질에 대한 통칭이다. 이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야생동물의 성적 발달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불임을 일으키고, 남성의 정자수를 줄이거나 소녀들의 성적 발달을 앞당기며 생식기관 관련 암들을 증가시키는 데 주범이라는 과학이론은 의학논문 등을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고, 테오 콜본(Theo Colborn) 등에 의한 유명한 윙스프레드 합의문(Wingspread Consensus Statement)도 1991년에 발표되었다. 산업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 비누, 화장품, 약품, 농약 등에 이러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발 뉴스는 쉽사리 퍼졌을 만하다.

하지만 생식능력에 관련된 심각성이나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는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서야 세계로 전파된 셈이다. 초기의 정자수 감소에 관한 연구 결과가 네덜란드와 영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영향도 있겠지만 언어장벽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미국에서도 이 뉴스는 강력한 화학업계의 로비 하에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¹⁾ 미국에서는 1996년 발표된 콜본 등의 『도둑맞은 미래(*Stolen Future*)』가 일시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편이다. 사실 이 책은 한국출판계의 전반적 미국 의존성을 반영하듯 1997년에 바로 번역 출간 되었지만, 이 책의 “호르몬 저해 화학물질”²⁾에 대한 경고는 일반 뉴스에 등장하지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 반향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한국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8년이다. 일본 20대 남성의 정자 수가 40대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뉴스에 이어 컵라면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일본발 뉴스가 발단이었다. 일본처럼 스티렌다이머나 트라이머 용기에 담긴 컵라면을 즐겨먹는 한국인들

1)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미국의 대중적,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는 Krinsky(2000)의 글을 참고할 것. BBC의 다큐멘터리들을 통한 유럽국가들의 반응도 볼 수 있다. 미국 화학업계의 영향력으로 인한 규제의 지연과 환경호르몬 관련 정보의 은폐에 대해서는 Vogel(2008)의 글을 참고할 것.

2) 이 초기 번역판은 환경호르몬은 물론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신조어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테오 콜본, 1997).

은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컵라면 매출이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일본식 번역어인 ‘환경호르몬’은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상어가 되었다. 테오 콜본의 책 등에 묻혀 있던 ‘환경호르몬’ 관련정보가 다시 발굴되었고 새로운 책도 잇달아 출판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신의 정지는 안녕하십니까?” 같은 슬로건으로 시위를 조직했고, 비슷한 정도로 선정적 제목을 내건 기획성 기사들이 1998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거의 모든 잡지와 신문의 지면을 뒤덮었다.

이런 압도적인 우려에 정부도 신속하게 반응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그 해가 저물기 전에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장기적 연구 계획도 발표했다. 당시 일부 전문가와 정부는 ‘환경호르몬’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었는데(김록호, 1998), 이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한국의 유래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인지도가 낳은 정치적 압력을 보면 사소한 명칭문제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인 정부와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후 사태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지녔던 것인지도 모른다.³⁾ 다만, 이들의 시도가 성공하기에는 ‘환경호르몬’은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였다. 다음 절에서는 컵라면에 담겨 일본과의 문화적 유사성을 배경으로 잘 번역 전달된 ‘환경호르몬’의 위험이 한국의 아토피 관련 지식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환경호르몬’이라는 조어의 힘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로 영문판 NewsWeek와 한국판 『뉴스위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화학업계의 로비 등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거의 없는 미국의 사정을 반영해 NewsWeek 등의 잡지를 검색하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의 번역판인 한국판 『뉴스위크』는 때로 환경호르몬을 제목과 내용에서 언급하는데,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련기사에서 환경호르몬이라는 한국인 모두가 아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해를 도우리라는 믿음 때문인 듯하다(뉴스위크, 2008; 2009). 또한 한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제가이드라인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일례로 PCBs 규제 관련 논란을 들 수 있다(환경부, 2009).

3. 세 가지 지식활동: '세계적', '토착적', '생활밀착' 형 지식활동

우선 아토피 문제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학계를 살펴보면, 환경호르몬의 위험과 같은 대중과학적 이슈가 아토피와 관련한 그들의 지식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에 반응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부기구 등을 통해 상당한 '과외' 활동에 참가하게 된 의료인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들이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⁴⁾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식기관이라는 통념이 퍼져있으므로, 아토피를 진단하고 연구하는 알레르기·면역학과 피부학 분야 전문가들의 무관심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무관심은 아토피와 '환경호르몬'의 미약한 상관성보다는 세계적 수준에 있는 과학연구 자체의 특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과학기술 입국을 내세워온 한국의 의학연구는 이제 세계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인정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는 분야별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도구·방법론 등을 적용해 전문가 사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생산성과 문제해결능력은 일종의 국제화된 편협함을 낳을 수 있는 학문 생산과 검증의 구조 속에서 얻어낸 성과이기도 하다.⁵⁾ 얼핏 보면 한국에서 아토피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증가하는 빠른 속도는 전문가 집단이 아토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4) 과학적 지식활동이 사회적으로 자유롭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일종의 '과외활동'에 참가하게 된 의료인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지식활동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표준에 의한 것으로 '내세워' 그 영향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2006년 KBS다큐멘터리로 불거진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의 연관성에 대한 식약청 주관 5개 대학 콘소시움의 연구결과와 그를 둘러싼 논란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의학계는 과학연구의 '순수성'과 국제적 '의학윤리' 규정 등을 들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을 부인한 자신들의 연구결과와 '과학성'을 옹호했다(윤태호, 2005; 2006).

5) 자사노프는 지역성과 세계성이라는 말이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며, universality 자체가 과학활동의 특수한 provinciality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Jasanoff, 2004).

한다. 1980년대 내내 74건에 불과하던 논문 수가 2000년대가 되면 51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KISS 데이터베이스). 하지만 이는 또한 국제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국제의학저널의 논문 수는 어린이 아토피로 한정을 해도 1980년대 807건에서 2000년대에 2,537건으로 늘어난 것이다(PubMed 데이터베이스).

한국과 전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아토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실제 아토피 환자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이상진·변대규, 1993; 홍천수, 1995). 두 번째는 더 자주 발견될 뿐 아니라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 만성피부병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이 많지 않고 적절한 치료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아토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드물던 1990년대 초·중반에 이미 아토피 증가를 논하는 논문들이 의학저널에 발표되고 있던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아토피 증가현상을 규명하려는 국제 및 국내 학술지의 구체적 노력을 비교 검토해 보면 그 유사성은 더 두드러진다. 면역학, 알레르기학, 피부학 저널들의 관련 논문을 검토해 보면 그 주제, 방법, 진단도구와 실험기구의 모든 측면에서 국내와 국제 연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보편성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Bruno Latour 등의 연구가 지적하듯 과학지식의 보편성은 지속적인 표준화와 이렇게 표준화된 지표와 진단틀·검증방법을 통한 과학적 사실의 누차적인 국제적 유통을 통해 달성된다(Latour, 1987). 특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한국 어린이의 민감도를 검사하기 위해 연구진은 국제적 공인을 받은 영국 벵카드 회사의 표준화된 집진드기 항원 등을 공급받고 SCORAD 인덱스나 Hanifin and Rajka 진단 항목에 따라 결과를 판단한다. 물론 임상을 중시하는 연구자와 원리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 사이에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고, 시간이 흐르며 점차 분자공학적 연구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토피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되풀이 등장하는 가설에서도 그에 대한 답에서도 과학

연구의 국제적 보편성은 뚜렷하다.⁶⁾ 결국, 아직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진행 중인 아토피의 국제화된 연구가 현재까지 도달한 합의는 아토피 환자들이 특정 항원들에 대해 높은 면역글로불린E(Immunoglobulin E, IgE) 반응수치를 보인다는 것과, 6-70 퍼센트 가량의 환자들이 아토피 가족력을 보인다는 것이다(김규언, 1999; 최혜정·김규한, 2004; McGeady, 2004). 그러나 아토피에 대한 합의라는 것은 이제 전부이다.

아토피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가설들이 각축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꽤 오래 지지를 받고 있는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의 경우, 산업화된 국가의 부모들이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 나머지 아이들이 병원균에 대항하는 면역체제를 훈련시키지 못하고 가짜 항원에 반응하는 민감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진드기 가설'은 도시 생활의 늘어나는 먼지, 침대와 카펫 같은 안락함을 위한 생활 환경,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등이 집진드기가 창궐하는 비위생적 환경을 조성해 집진드기에 민감한 아토피 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해에 찌든 모유가 문제라거나, 예방주사의 과잉으로 인한 면역시스템의 약화, 다양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의심하는 다른 가설들도 추가된다(Sheikh et. al., 2004; Werner et. al., 2002; 노건웅·이기영, 2000; Chandra, 1998; 한영신, 2005; 편복양, 2005; 오재현, 2006; Ventura et. al., 1998).

서로 경쟁하거나 지지관계에 있는 다양한 가설 중 초기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광범위한 '환경가설'로서 이 가설에 입각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역학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시와 농촌의 비교, 공단지역과 도심지역의 비교 등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연구가 그것이다.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역학 조사에서 더 뚜렷이 드러나듯, 이러한 '환경가설'에 대한 연구들은 세계 인구의 급격한 유전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유전적 소인이 강

6) 한국, 일본, 미국의 아토피 연구를 더 면밀히 비교분석할 경우, 대체적 유사점 이외의 차이점이 드러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답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과학연구의 특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 아토피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설명하려면 '동일' 유전자 집단의 환경 차이를 분석해 환경적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뉴질랜드가 주도하여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이 참가한 ISAAC(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과 같은 국제 공동 연구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도구로 한 이 국제적 역학 조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설문지의 번역 등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애매한 "환경 요소가 질병 발현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결론 밖에 내지 못했다. 어떤 환경 요소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가 앞으로 많은 가설들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this descriptive hypothesis generating study)이라는 논평 밖에 없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했을지 모르지만, 아토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토피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약을 물론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기성' 의학에만 의존할 리는 없었다. 일차적 대안은 한의학계가 제공했다.

한국의 한의학계에서는 대안의학 혹은 대체의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의학은 유수의 대학들에서 거의 서양의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과과정을 갖추고 교육·연구되고 있고 자격제도도 엄격해 그 전문성이 의심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한의학이 한국 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세우려는 한의학계의 노력이 10년 넘게 좌절을 겪다 2008년에야 부산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결실을 맺은 데서 보듯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기득권영역으로 조금이라도 세력을 확장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한약조제·판매권을 놓고 벌어진 한약분쟁만 보더라도 이들의 영역에 대한 '서양'의학계의 침투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이렇듯 아직 주류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경쟁에

7) "Caution has to be exercised in interpretation of this data, but taken as a whole, the results suggest that environmental factors *may be* critical in disease expression" is the exact expression(Williams et. al., 1999, 강조는 필자).

서 살아남기 위해 써 온 오래된 전략의 하나는 그것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의학이 보유한 독특한 역사적 전통이 그 차별화를 정당화해준다. 서양의학과 달리 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식과 치료가 보편적 진리라고 주장하기보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전통과의 친연성을 내세우는 것을 택한다. 흥미로운 역설은 세계화 시대의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한국적’ 학설을 창안하는 데 보편 혹은 현대과학의 이론이랄 수 있는 번역학적 논의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의 실제적 기원은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고 이들이 전통을 강화하기 위해 쓰는 ‘현대과학’을 생각해도 그렇고 전통의 얼굴은 늘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통’을 새 단장해 강화하는 외에도 수세에 있는 ‘전통’의 수호자 한의학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좀 더 소극적이지만 ‘서양’적 접근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다. ‘서양’ 과학기술이 가져온 더욱 풍요하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현대 생활의 위험을 경고하는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아토피 등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의학계의 집중적 관심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한의사들은 아토피에 “문명병”, “현대병”, “환경병”, “선진국병”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김소형, 2004; 양성완, 2003). 한의사들의 이러한 논의는 약재의 분석이나 한의학 이론에 의한 병리·치료메커니즘을 논하는 학술논문(김기훈, 2004; 박찬익, 2006; 박두병, 2007)에서 보다는 그들이 ‘전통’으로서의 한의학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즐겨 이용한 신문·잡지와, 무수히 출판된 한의사들의 아토피안내서에서 더 활발하게 개진된다. 이 논문은 이들이 서양의학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제시하는 몸과 의학지식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토피가 면역체계의 이상이라는 사실은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환자의 면역체계 강화 혹은 체질 개선을 내세우는 한의학의 발언권을 특히 높였다. 무수히 출판된 “한방으로 고치는” 아토피 자가치료법은 그래서인지 대개 상세한 ‘현대과학’의 면역이론을 동반해 아토피 환자의 면역체계 이상을 논하곤 한다. “표리한열의 불균형”과 같은 한의학적 이론을 고수하는 쪽도 있지만

(마키세·허정구, 2008: 54) 다음과 같은 설명도 일반적이다. 아토피 환자들의 면역체계는 Th1과 Th2쪽으로 구성된 면역체계에서 IgE가 매개가 된 특이면역반응을 담당하는 Th2쪽으로 편중이 되어있다. 원래 태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몸이라는 타생물체를 공격하지 않도록 병원과 같은 타생물체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는 Th1 쪽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Th1 쪽을 강화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여전히 Th2 쪽이 강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특이면역반응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양성완, 2003; 한겨레신문, 2009. 4. 6). 현대과학적 언어를 거리낌 없이 차용한 이런 설명을 제시한 후 이들은 곧 현대 서양의학에는 이러한 면역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⁸⁾

사실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는 만성피부병인 아토피가 그토록 주목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데는 고질적인 가려움이라는 증상과 그에 대한 변변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의학계의 무기력함이 크게 작용했다. 가려움증 때문에, 환자 특히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고 피가 나도록 긁어대어 상처와 2차 감염을 수반했다. 긁어대는 아이를 막으려는 부모와 가족도 잠을 설쳤고 함께 고통을 겪었다⁹⁾. 병원에서 쉽게 처방이 되는 가려움증 약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토피성 가려움에 처방이 되는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제는 사실 처음에는 가려움증에 마술처럼 효과가 뛰어났다.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데 있었다. 그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는 한의사를 찾기는 힘들다. 대개의 장기적인 아토피의 경우 가려움증은 지속된다. 환자들은 점점 더 강한 스테로이드제를 찾게 되어 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 연고의 장기적 사용은 코끼리피부처럼 두껍고 거칠어진 피부('태선화'라는 한의학적 명칭이 있다)를 초래하고 마침내는 아무리 강한 스테로이드제도 듣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된다(청녀, 2002). 결국 환자들은 스테로이드의 '효과'에

8) 의학계에서 치료법으로 내세우는 면역치료법의 경우도 부작용과 함께 아직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보려면, 최민희,(2002) 등 참고.

9) 이와 관련해 아토피 가족의 삶의 질은 심각한 연구주제였다(박창근·박천옥, 2007).

강한 의구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서양의학적 접근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김중희, 2005). 그에 따라 60-70%의 아토피 환자들이 대안의학 을 시도했다(진현우·장호선, 2003).

이런 상황의 1차적 수혜자는 한의학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대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했다. 현대의학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현대의학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던 셈이다. 한의사들은 아토피를 계기 삼아 서양의학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함께 '우리 것'의 우수성을 내세웠다. 크게 두 가지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그 문제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진 스테로이드와 그로 대표되는 서양식 치료법의 치료 철학이 의문시되었다. '서양' 의학은 단순히 병이나 증상을 없애는 것을 치료로 볼 뿐, 바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병이 나타나는 개개 환자의 몸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추상화된 질병 개념 대신 병을 환자 개개인에게 발현된 구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제시되던 것이었지만, 이 맥락에서는 도리어 한의학의 장점으로 간주되었다(마키세·허정구, 2008). 총체적 인간이 한의학 치료의 중심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올바른 의학적 접근은 환자가 몸을 자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도록 돕고 건강한 생활방법을 가르쳐주는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장이었다(청녀, 2002: 32). 면역체계 이상과 관련된 만성질환인 아토피의 경우 이런 식의 비판은 특히 유효했다.

물론 서양의학 쪽에서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전문적 의학치료는 바른 생활에 대한 설교와는 차원이 달라야 하며 한의사들의 충고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이론도 없다는 것이 반론의 주를 이루었다(진현우·장호선, 2007). 한의학 이론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¹⁰⁾ 그러나

10) 한의학이 현대적 면역이론 등을 채용하듯 서양의학도 '서양'의학적 접근방법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생활치료법을 많이 접목하고 있다. 물론 대중의 무지한 스테로이드제와 서양의학 불신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양방 합동의

한의학계는 경험적 접근이라는 평가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임상경험'을 비하하는 이런 비판 자체에서 서양의학의 문제점을 보았다. 임상경험을 무시하고 실험실에서 추상적 이론이나 구하기 힘든 과학적 증거 찾기에 몰두하는 접근이 서양의학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토피는 “정답은 없고 개인의 경험만 있는 질환”이었다(한겨레, 2008. 1. 24). 실험실에서 답을 구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지식이 아닌 임상으로” 병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치료의 바탕은 한의사 자신의 임상경험이었다. 아들이나 딸처럼 가까운 이들을 치료한 한의사 자신의 사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도 한 추세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이 아토피에 대해 겪은 경험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조선일보, 2003. 11. 05; 한겨레, 2008. 12. 22; 김소형, 2004). 자신의 고통어린 경험을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 의사의 자질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의학계는 아토피가 '환경병'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상적 경험을 중시하는 한의학 지식활동의 초점은 이 환경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데 있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병에 하나의 외인(外因)이 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의학적 접근으로 보면, 특정 질병에 대해 한 두 가지 원인 물질을 밝힐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문명병"·"현대병"의 원인은 지나치게 영양이 높은 "서구화된" 식단일 수도, 약물 남용일 수도, 화학물질이 가득한 주거 환경일 수도, 환경호르몬이나 공해일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체질 혹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마키세·허정구, 2008). 환경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에 대해서 약물처방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반면 '비의학적' 생활지침을 제시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었다. 약물의 남용은 오히려 아토피 증가를 심화시킬 것이었다.

아토피가 '환경병'인 것은 한의학의 서양의학 비판의 두 번째 논점과 관련

아토피 병원이 탄생하기도 했고 대체의학을 도입한 의학대학 병원들도 있다.

된다. 인간의 몸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자기완성적 개체로 보는 서양의학적 몸의 개념으로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병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¹¹⁾ 환경병은 ‘천인상응(天人相應)’ 관념과 같은 고래의 한의학적 사상을 통해 몸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되찾을 때 알 수 있다고 한의학계는 주장한다. 전통 혹은 “오래된 미래”가 내세워졌다. 문제는 단순히 아픈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돌보지 않고 마구 개발해 황폐화된 자연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는데, 이는 생태적이지 못한 ‘서구적’ 근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생태적 눈으로 보았을 때 서구적 모델이 적용된 현대의학은 몸과 자연의 부조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어떤 질병이든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헛된 약속으로 이런 서구적 문제를 도리어 심화시킬 뿐이었다. 천인상응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연의 법칙과 항상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또 인간의 몸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인간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과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문화의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환경친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박용신, 2004: 56). 이러한 다소 급진적인 주장보다 더 놀라운 일은 성진이의 예에서 보듯 이러한 치료법이 많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친환경 치료법’은 아토피 환자들에 의해서만 시도된 것은 아니고 꼭 한의사들의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일종의 문화운동의 형태를 띠고 일어난 흙 집 짓기, 귀농, 숲 치료, 유기농·전통식단 운동 같은 ‘친환경적’ 혹은 ‘생태적’ 삶은 한의학계가 제시한 것과 같은 ‘현대 문명’ 비판과 ‘우리 전통’ 찾기의 색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둘 사이의 상관

11) Nancy Langston은 캘리포니아 과수원노동자 농약 중독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서구적 몸의 개념이 환경독성학자들의 연구에 일종의 인식론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보았다.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주변적인 이민노동자라는 점도 과학자들이 이들의 호소에 뒤늦게 반응하도록 작용했지만, 몸과 환경을 분리시키고 몸을 독자적으로 파악하려는 서양의학의 인식론적 틀도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으로 생겨나는 농약 중독을 쉽게 개념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었다 (Langston, 2004).

관계는 선후를 따지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의학계가 아토피를 통해 내어놓고 있는 몸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틀이 '아토피 = 환경병' 등식의 한국적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다소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대중의 지식활동을 검토해 보면 가장 뚜렷한 점은 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내서 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학전문가들의 '국제적 편협성' 혹은 '전문가적 근시안'과 대비되는 잡식성의 정보수집열을 보이는데, 대중적 지식활동은 세계적 수준의 의학계의 지식활동의 산물도, '역사적' 친숙성으로 더 쉽게 소화된 듯 한 한의학계 지식활동의 산물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적 지식생산을 좌우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아토피의 환경호르몬 기원설은 결국 이들의 독자적 지식활동의 결과인 것이고, 무엇보다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을 창의적으로 운용한 결과이다. 이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과학이론을 받아들인 것을 무비판적 정보수용이 아니었다. 이들의 대중적 지식활동은 나름의 강력한 비판적 경험주의를 체현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의사들이 제공한 지식도, 한의사들이 제공한 지식도, 인터넷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도 결국 스스로의 경험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잠정적 정보였다. 1990년대 이후로 "의사도 못 고치는 아토피, 아토피안이 고친다"와 같은 과감한 제목의 책들이 아토피 경험자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출판되었다.¹²⁾ 산지킬러, 호야아빠, 여니라는 이 책의 저자명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경향은 대중적 지식활동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우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지식활동의 한 사례를 보겠다.

아토피 경험자들에게 인터넷이란 공간보다 더 편리하게 자신들의 대안적 지식활동을 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을 것이다. 환자들이 전문의료계에 등을

12) 아토피안이란 이들이 아토피경험자를 가리켜 만든 신조어이다.

돌리고 있는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약 70퍼센트 정도의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안적 진료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인터넷에 존재하는 아토피 사이트들이 모두 환자들의 자발적 지식활동 네트워크는 아니다. 97퍼센트의 사이트가 사실은 각종 아토피 상품 판매자들과 한·양방을 포함한 병의원들이 선전을 겸해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한다. 아토피안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는 겨우 10 개에 지나지 않는다(권현조·김연정, 2006). 대중적 지식활동의 한 예로 이 논문은 가장 성공한 아토피 사이트인 '수수팥떡 아이사랑모임'(이하 수수팥떡)을 택했다. 10개의 사이트가 모두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수팥떡이 이들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수팥떡은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중적 지식활동이 벌어지게 된 한국사회의 특수한 동력 하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수수팥떡의 탄생에는 한 어머니의 노력이 주효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활동한 운동가 출신이자 여전히 언론 민주화 운동에 몸담고 있는 최민희를 그냥 한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는 아토피 엄마를 위한 아토피 엄마에 의한 사이트를 표방한다. 수수팥떡은 최민희가 2001년 펴낸 출산·육아 지침서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탄생했다. 40대에 둘째를 낳은 최민희가 “자연법으로 건강하게 아이 낳고 기른” 경험을 담은 이 책은 잘못된 의학지식을 퍼뜨린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이를 낳은 후 48시간 동안 굶겨서 태변을 보게 하라거나, 낳자마자 100분간은 발가벗겨 두라거나 하는 상당한 강단을 요하는 충고도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자연'적 건강법이 원래 아토피를 겨냥했던 것은 아니다. 『말』 지 기자로 일하던 최민희가 자연요법을 접하게 된 것은 암을 앓던 장기수를 인터뷰한 인연이라고 한다. 그를 도울 방법을 찾다가 배우게 된 것이 자연요법이고 스스로도 점차 거기에 경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연요법 강의를 언론민주화 활동과 병행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아토피

어머니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출판하면 인세의 절반을 그토록 많은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아토피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노라 약속했고 수수팥떡이 그 결과였다. 그녀의 첫 책과 마찬가지로 수수팥떡도 애초에 아토피만을 겨냥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토피 치료 경험을 이야기한 그녀의 방송 출연 이후 아토피 어머니들이 몰려들면서 이 사이트는 곧 공식 아토피 사이트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이주현, 2004; 최민희 2001a; 최민희 2001b).

수수팥떡이라는 이름에서도 얼마간 드러나듯 그녀에게도 아토피 문제는 우리 전통의 지혜로운 방법들을 버리고 현대식 삶을 무분별히 추구한 결과이다. 그녀의 자연건강법은 일본의 니시 카츠조(1884-1959)가 창안한 니시 자연건강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녀가 추출해낸 자연건강법의 핵심원칙은 '신토불이 생활법'이다. 사실 '신토불이'는 한의사들의 논의에 나올 뿐 아니라 같은 제목의 대중가요까지 등장시키며 사회전반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웹사이트는 그녀의 민주화 운동 경험 혹은 민주적 소통에 대한 이상을 담은 특별한 디자인을 담고 있다. 수준을 달리해서 6개월 미만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초보방, 그 이상의 장기적 아토피를 위한 아토피 피부염방, 성인 환자들을 위한 성인 아토피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시판은 누구나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올리고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이다. 이들의 경험적 앎을 승인해줄 어떤 전문가도 없었고, 단지 이미 경험해본 어머니들이 초보 어머니들의 질문에 답해주며 각자가 앎고 있는 아토피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공간이었다. 힘든 자연치료를 수행할 힘을 북돋기 위해 서로 격려와 아픔을 나누는 것도 필수적 요소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5만 건 이상의 아토피 경험과 비책이 쌓이게 되는 이곳은 실제로 모든 민간요법에 대해 그 신뢰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생활환경을 어떻게 만들지와 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토피 건강법이 망라되어 있고 니시건강법에 따라 최민희가 추천하는 풍욕법과 냉온욕법·단식 등은 별도의 자료실에 소개되어 있다. 이 모든 경험담이

“자연에 가까운” 삶이라는 최민희가 주창한 건강법으로 대략 수렵이 되기는 하지만, 이 사이트가 강조하는 것 하나는 모두에게 들어맞는 최고의 건강법이란 없다는 점이다. “아이는 백이면 백 다 다르므로 다른 아이에게 좋은 것이 내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웹사이트의 경고이다. 이런 안내문들은 무엇보다 어머니들을 수동적 정보수용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보여준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공부를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때로는 아이에게 시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통해 실험도 해 보라는 권유였다. 심지어는 “과연 자연건강법으로 아토피를 고칠 수 있을까? 되풀이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수수팥떡 어머니들과 함께 이듬해 펴낸 책에서도 거듭 강조하듯 수수팥떡은 무엇보다 권위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회의주의를 전도한다. “마지막엔 자신에게” 물으라는 것이다(수수팥떡 홈페이지; 최민희, 2002).

대중적 지식활동의 오프라인 지식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다지사)”의 어머니들은 이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다. 다지사는 이제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 속해서 환경과 어린이 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소규모 NGO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모임의 출발은 어머니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이었다. 수수팥떡과 마찬가지로 ‘386세대’의 사회참여정신을 보여주는 이들은 1999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마련한 환경강좌에서 만났고, 그 중 10여 명이 강좌 이후에 같이 더 공부를 해보자며 모였다. 성진의 어머니인 박명숙을 포함한 이 어머니들은 1999년 말에 벌써 모유에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발견된 사실에 대한 성명서를 내며 ‘활동’을 시작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이 가라앉지 않은 시점이었고 컵라면의 기억도 생생했지만, 아직 아토피나 ‘환경호르몬’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고 한다(박명숙, 2010).

이들이 생활 속 환경위험요소 중 하나인 ‘환경호르몬’ 그리고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잠재적 위험성을 보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촉수를 세우게 된 것은 이들 중 일본의 생활환경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던 한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한다. 2개월 무렵부터 엄마와 함께 환경강좌와 세미나를 듣던 성진이 아토피에 걸린 것을 비롯해 '어머니'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이 보기에 환경악화의 최악의 문제는 더 낮은 생활환경과 더 좋은 영양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부실한 건강상태였다. 이들은 곧 아토피의 원인으로 의학계가 제시한 다양한 학설로는 늘어나는 아토피와 아이들의 약해진 면역력을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이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아토피 '증상'의 주요 인자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일본의 '아토피 아이, 지구의 아이'와 같은 단체의 아토피와 화학물질과민증 관련 논의의 영향도 있지만, 나름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과정과 가설 설정 과정도 드러난다. 의학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리 다를 것도 없는 이들의 논리는 90년대 이후의 아토피 증가를 설명하기에 진드기와 먼지가 갑자기 등장한 요소도 아니며, 지나친 깔끔함이 문제라는 위생 가설이 보여주는 집의 위생상태와 아토피 발병의 상관관계는 결국 위생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수많은 화학물질과의 상관관계일 수 있다는 추론이었다. 콜본의 『도둑맞은 미래』가 제기한 환경호르몬의 문제는 건강에 대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구체화시켜주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내분비계는 물론 세포 신호변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면역계나 신경계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콜본의 지적을 생각하면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아토피와 같은 특이면역 질환의 증가와 무관할 수 없었다(박명숙, 2010).

다지사가 펴낸 세 권의 아토피 베스트셀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화학물질·환경호르몬에 대한 자신들의 의심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했음을 보여준다. 아토피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음식환경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시리즈 두 권은 이미 최민희도 권했던 “생활협동조합의 깨끗한 음식” 먹이기를 권하면서 더 확실하게 위험요소를 지목하고 있다(최민희, 2002). 이들은 “환경호르몬 함유 농약 17종 58품목 시중 유통”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농약을 마구 살포해 뿌린 농작물은 바로 이 환경호르몬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입 농산물은 거기다 운송을 위해 추가되는 추수후농약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토피 아이

들의 식생활에서 “농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되는 법”을 찾기 위해 생협이 필요했다(다지사, 2000: 15-23). ‘숨어있는 환경호르몬을 찾아라’라는 환경호르몬 알리기 캠페인에 이어 출판한 『우리 집에서 아토피를 잡는 99가지 방법』은 환경호르몬 가설에 근거한 생활 수칙들을 완벽히 체현한다. 이 책은 또한 현대생활의 거의 모든 방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유해화학물질이 좀 지나친 데로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분명한 지침의 역할을 하기도 함을 보여준다. 플라스틱 용기와 장난감, 농약과 살충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류와 비누, 화장품이나 약품, 건축과 인테리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호르몬들은 생활의 면면을 철저하게 점검해 자연적으로 바꿀 이유와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다지사, 2003).

다지사의 인터넷 활동은 환경정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들은 상당히 막강한 오프라인 미디어 활용력을 보여주었다. 다지사는 진보적인 성향의 한겨레신문 뿐 아니라 일간신문 중 구독률이 가장 높은 조선일보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물론 환경운동은 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운동이지만, 비판적 성향의 이들이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조선일보의 우호적 관심을 받은 것은 놀랍다. 이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라는 자신들의 주류적 정체성이 주효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한겨레 칼럼 연재를 통해 자신들의 환경호르몬 가설을 포함, 전반적인 아토피 위해 요소에 대해 공격했고 아토피 문제를 서서히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환시켜나가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광용아 햄버거 맛있니”라는 제목으로 <슈퍼사이즈미>라는 미국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고발성 다큐멘터리를 패러디 했는데, 이 다큐 제작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인지도를 높였다. 아토피 사회문제화를 더욱 진전시킨 것은 새집증후군과 식품첨가물 관련 TV 다큐멘터리였는데 SBS와 KBS의 다큐 제작진들도 다지사 어머니들을 아토피 어머니들의 대변인으로 삼았다. 또 다지사가 계속 힘써온 평범한 엄마 환경감사 만들기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도 다지사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늘어난 다지사 어머니들은 이들의 대표성을 강화했을 것이다(다지

사 홈페이지; 다지사, 2005; SBS, 2004; KBS, 2006). 사회참여적이고 권위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의심을 보이는 이런 어머니들이 집과 인터넷을 비롯한 공적 공간에서 설새없이 벌여 온 지식·치유활동을 통해 아토피는 마침내 주류 언론이 주목하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환경문제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상징하는 대표적 환경병이라는 지위를 얻어갔다.

물론 아토피의 환경호르몬 가설, 나아가 '아토피 = 환경병'의 등식이 지식으로의 명확한 권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과학지식의 불확실성과 설명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도 해 내지 못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의 명확한 규명이나 역학 연구에 의한 충분한 증명을 해냈기 때문은 아니다. 과학이 불확실하듯 이들의 대안 이론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학의 불확실성은 전문가들의 무력함으로 정치화되어 이들의 지식활동에 대한 참여를 정당화할 수 있었고, 또 불확실성이 꼭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것도 아니었다.¹³⁾ 즉, 위해성도 불확실했지만 안정성도 마찬가지였다. 과학자들은 확실한 인과관계를 규명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위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시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장 앞에 내세운 아토피 엄마들은 이를 화학물질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박명숙에 의하면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과학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매개자라는 '겸손'한 역할을 상징했던 것으로 보이지만(박명숙, 2010), 이들의 지식활동은 매개활동을 넘어 이들을 단순한 시민이 아닌 '시민 전문가'라 불러도 좋을 독자성을 보였다.

13) 반면, Michel Murphy, Naomi Orsekes, Nancy Langstone, Sarah Vogel 등의 경우,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들의 전용은 흔히 과학의 불확실성이 기업과 같은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따라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강위험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4. 아토피의 일상 정치와 아토피의 새 정치

아토피 엄마들의 쉼새 없는 노력이 보여주는 한 현상이자 그들의 노력을 떠받쳐준 힘이 되기도 한 것이 한국사회의 전반적 성역학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 변화는 사회 각 부문에서 ‘아줌마 파워’로 표출되었고, 이는 언론의 호들갑스런 주목을 받았다. 이 현상은 아토피 엄마들에 대한 주류정치인들의 관심을 상당 부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결혼한 여성에 대한 편한 통칭인 ‘아줌마’는 사실 그다지 여성들이 반기는 호칭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 고등교육의 증대와 함께 사회 전반에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전 세대의 습속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IMF 위기와 가중된 생활의 부담으로 이들의 경제 활동은 점차 확대되었다. 아줌마 파워라는 말은 경제생산과 소비, 문화생산과 소비, 풀뿌리와 주류 정치활동 등등에 뚜렷하게 흔적을 남기며 기업 활동과 선거 전략마저 바꾸고 있는 아줌마들의 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아줌마에 대한 오래된 부정적 인상도 바뀌고 있다. 1993년에서 2001년 사이 여성 경제 활동은 34 퍼센트의 증가를 보였고 또한 가정에 남아있는 아줌마들 또한 인터넷이란 매체를 중심으로 엄청난 사회 참여력을 보였다. 이들의 “안방 사회활동”은 “사이버 세상은 ‘여인천하’”라는 반응을 낳았다(조선일보, 2001. 7. 4; 조선일보, 2002. 5. 16; 김영준·옥경영, 2004; 김기범·김지영, 2004).

아줌마 파워는 물론 한 곳을 향하지 않는다. 사회적 참여의식과 정치적 각성을 보여주는 다지사 엄마들은 그 중 한 흐름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한 때 “남성의 위기”, “수컷의 위기”를 상징하던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험을 어린이 건강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¹⁴⁾ 또한 이런 이슈의 전환이 전반적으로 명시적 성담론에 깔려있어

14)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남성위기를 상징하는 반면 여성에게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재활용, 생활습관의 변화 등의 부담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에코페미니스트들

사회에서 환경보건이라는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만드는 데도 분명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토피 엄마들의 대의가 저절로 정치와 입법 과정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특히 예전에 없던 정치적 연대의 형성이 주효했다. 다음 두 소절은 아토피 엄마와 세계화 반대 지향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만남, 그리고 주류 정치에 발을 붙이려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신흥 정당과 아토피 엄마들의 만남을 통해 아줌마 파워의 정치적 잠재력이 구체성을 얻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식은 정치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대개 사회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 질환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린 아토피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 것인지를 사회의 공통 관심사로 만들었다.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식품생산자들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던 농업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만난다.

한국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도 이미 그 흔적이 있지만 이를 운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1986년 창립된 한살림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은 그 이름에 이미 원대한 꿈을 담고 있었다. “한’은 큰, 하나, 전체, 함께, 나아가 온 우주의 생명을 가리키며, ‘살림’은 살려 낸다” 뜻으로, 결국 한살림은 “모든 생명을 함께 살리고자” 했다(한살림 홈페이지). 이들은 무분별한 “산업문명”, “기계문명”이 온 우주의 생명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생명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생명의 원천인 먹거리를 키우는 방법부터 바꾸어야 했다(최혜성·장일준·박재일·김지하, 1989).

1991년이 되면 이들의 유기농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에는 다른 요소가 하나 추가된다. 한살림의 첫 번째 공개 캠페인이자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이들의 유기농 생산자 운동을 농산물수

의 비판은 꿈지모(2003)를 참고. 박명숙은 다지사가 불임이나 남성의 생식기능과 같은 문제가 아닌 아토피를 주 이슈로 삼은 이유는 모두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게 마련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박명숙, 2010).

입자유화에 대한 반대, 더 나아가 반세계화와 연계시키게 된다.¹⁵⁾ 이들은 유기농 생산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토착적 농업행위임을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농업정책과 값싼 외국밀과의 경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밀 생산을 되살려야 할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이 강조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었다. 외국의 산업화된 농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밀가루는 농약에 절여 있었고, 국민식단의 서구화와 함께 한국민은 점점 더 많은 밀을 소비하고 있었다. 선진국 사람들도 먹는 선진국의 밀이 한국 사람들에게 유독 더 위험한 이유는 밀이 배에 실려 수출되는 과정에서 추수후농약과 방부제가 더해진 탓이었다. 게다가 물에 씻어 먹는 대개의 다른 음식재료와는 달리 밀가루는 세척이 불가능했다. 수용성 농약조차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우리밀 생산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했다(한살림, 1991).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한살림의 주장에는 호소력이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우리밀’은 사치품이었다. 건강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지만 단순히 우리밀 농업을 살리기 위해 몇 배의 돈을 지불하려는 도시 소비자들은 많지 않았고, 그 결과 운동은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박상신, 2004). 한 평자가 말한 대로 좋은 음식을 먹는 기쁨보다 “몇십 배 절박한 이유”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우석훈, 2005a: 233). 그게 바로 아토피였다. 2000년이 되면 네다섯 아이 중 하나 꼴로 아토피를 앓게 되었고 대도시의 경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다지사 엄마들의 활동을 통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의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모유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다는 뉴스 등은 모든 임신부들을 걱정케 빠뜨렸다. 임신 중에 생각 없이 먹은 음식이 아이를 아토피 아이로 만들 수 있었고, 모유조차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되고 있었다. 어떤 것을 먹어야 하고 아이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한살림이 경고한 수입밀은 첫 번째 기피 대상이 되었다. 출

15) 비슷한 시기 천주교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도 발족한다. 우르과이라운드 체결과 WTO 체제로 상징되는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식량 의존성을 부각시킨 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박상신, 2004).

산 안내서들은 수입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라면·과자와 빵 등을 피할 것을 권했고 지나친 화장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 했다. 모성애를 동력으로 임산부들은 이러한 '가혹한' 생활 수칙들을 따랐고, 성공한 임산부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아줌마식'으로 널리 알렸다.¹⁶⁾ 실패한 어머니들은 자책감에 시달리며 아이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어머니들이 답을 주지 못하는 병원을 전전한 후 찾는 해결책이 자연요법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생태경제를 공부한 급진적 논자인 우석훈의 2000년대 중반 통계에 따르면 "아토피라는 거대한 문제를 생협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어머니가 우리나라에는 20만 명"에 달했다(우석훈, 2005a: 235).

생협이 아토피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힘을 준 만큼이나 아토피 엄마들이라는 새로운 가입자들은 쓰러져가던 생협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들의 덕분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자 생산자들도 유기농으로 돌아설 이유를 찾았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농업의 농약 사용은 국제 수준의 3배라는 통계가 있었는데(다지사, 2003), 이런 상황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에 겨우 0.1 퍼센트에 불과하던 유기농업 비중이 2002년에 이미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2008년에 다시 10배 정도의 증가를 이루게 된다(KOSIS 국가통계포털). 물론 11.9퍼센트의 유기농업 비중은 국제 기준으로 낮지만 의미심장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지지부진 하던 유기농 운동은 다양한 생협들을 탄생시키며 거의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에는 '귀농운동'을 비롯한 다른 움직임과 위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대안 생활에 대한 관심도 큰 몫을 담당하지만 적어도 '환경호르몬'이 없는 유기농 음식을 아토피 치료의 1차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아토피 엄마들의 비중은 적지 않다. 다지사 엄마 중 상당수는 생협을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삼기도 했다

16) 밀가루 음식에 대한 문의는 이제 100만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 육아 사이트 '지후맘'의 맘스홀릭 베이비에도 여전히 많이 등장한다(맘스홀릭 베이비; 김영한, 2007).

고 한다(박명숙, 2010).

생협의 성공을 유기농을 소비할 경제적·문화적 여유를 가진 이들의 늘어남 수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강화된 자유무역체계에서 우르과이라운드 당시 만들어진 일부 농산물에 대한 예외 규정은 곧 해제되었다.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수입 농산물 홍수 시대”를 맞았다.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이 판치는 세상”에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되지 않을 리가 없었다(다지사, 2004: 12). 즉 단순히 유기농산물을 원하는 것이 라면 이제 한국 어머니들은 대규모 유통점이 수입한 덴마크와 미국의 유기농산물을, 국내의 생협에 가입하고, 미리 식단을 짜서 주문하고, 때로는 고르지 않은 흙투성이 농산품을 배달시켜 먹는 불편함 없이 구할 수 있었다. 다지사 엄마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소비가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책을 펴내는 지식활동에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아줌마 수다로 풀어보자는 느슨한 분위기에서도 이들은 유기농산물 수입의 생태적·정치적 함의를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유기농체인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에서는 유기농의 정신을 별로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국 유기농의 경우, 그 나라 생태계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로 수출될 때 운반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지적이었다(다지사, 2004: 292). 외국의 3배에 달하는 농약 사용을 줄여 우리 농업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생협을 통해 우리 유기농 생산자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일상적 소비는 국경의 구분이 없는 생태계와 지역의 농업활동의 건강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일상적 환경정치인 셈이다. 물론 모든 생협 가입자와 모든 아토피 엄마가 이 정도로 참여한 환경정치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리를 못 잡고 있던 생협운동을 떠받치고 있던 이들의 힘은 두드러졌다.

아토피 엄마들의 정치력은 곧 전문 정치인들의 주목도 받게 된다. 『88만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은 아토피 엄마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심오한 흐름을 만들”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책이 제

공하는 이론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들의 진지한 움직임에서 한국 정치지형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2005년에 그는 두 권의 책을 급히 펴냈다(우석훈, 2005b: 13).

첫 번째 책은 아토피를 한국정치 실패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아토피의 증가라는 상황은 잠시 밀어두고 우석훈은 아토피가 아주 한국적이며 서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직껏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이 생겨난 한국적인 문제들 그리고 특히 ‘서울적’인 문제들”인 아토피와 같은 것은 “생명없는 발전”과 부패로 상징되는 아주 서울적인 건설공화국의 귀결이라는 것이다(우석훈, 2005a: 102). 이런 “생명없는 발전” 패러다임이 한국의 공해 특히 미세먼지 피엠텐(PM 10)의 오염도를 세계 최고로 높였고 그 희생양이 극심한 오염 속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라는 것이다. 정치의 실패가 “아픈 아이들의 세대”를 만들었다. 설상가상 한국의 현 정치권은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다. 정부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피부성 질환”으로 규정한 아토피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우석훈, 2005a: 142). 그는 한국의 극심한 피엠텐 문제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토피 아동들의 통계”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비판했다. 북한 정권의 실패에 비견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아픈 아이들의 세대”를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진군의 시대” 아이들과 비교했다. 군사력에 빈약한 국가의 재정을 쏟아 붓느라 굶어 죽고 왜소해진 북한의 아이들을 아토피 아이들과 비교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극대화하는 언어였다.

이어지는 그의 『음식국부론』(2005)에서도 그는 정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희망 찾기로 바뀌었다. 이 책은 아토피 엄마들이 식탁에서 시작한 “유쾌한 반란”이 “건강한 밥상을 지킬 마지막 보루” 생협을 살려낸 희망적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아마 “아토피라는 거대한 문제”가 아토피 엄마들을 통해 아토피 엄마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다면 아토피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두 책은 마치 민주노동당 정책고문이란 직함을 갖기도 했던 우석훈이 민주노동당의 ‘아픈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응원하러 쓴 것처럼 보인다.

민주노총에 기반을 두고 ‘노동’을 정당 이름에 처음으로 내세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으로 화려하게 주류정치에 입문했다. 이들은 소수정당이 난립했던 이 총선에서 10명을 국회로 보내는 성과를 올리며 진보층의 정치개혁 열망을 달구었다. 하지만 해방 후 44년 역사에서 진보당이 이룬 최고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즐기기에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 꼭 장미빛 만은 아니었다. ‘노동자’ 색채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었고, 실제 정당의 득표기반도 노동자가 아닌 지식층과 중산층으로 드러났다(강원택, 2004; 조연현, 2004; 김광철, 2004). 299명의 국회에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것도 도전이었다. 대중적 지지를 위한 폭넓은 연대 이슈가 필요했다. 우선 10명의 의원을 14개 상임위원회에 잘 나누어 배치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환경과 노동이라는 이질적인 문제를 결합한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의 14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라는 한국정치의 한계도 아토피 의제의 형성을 돕는다. 녹색정당의 정체성이나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던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환경의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¹⁷⁾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증견 단병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되었고, 녹색의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의원실 차원에서 기울여졌다(김홍석, 2006). 의료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아토피의 심각성을 확인한 이들은 아주 참여적인 중산층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념과 계급을 넘어서는 일상적 의제”인 아토피를 주요 환경의제로 채택했다(김홍석, 2006; 민주노동당, 2005a). 이들은 아토피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아토피 STOP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토피와 환경오염과의 연관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1년

17) 보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관심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병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보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은 한재각·장영배의 분석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녹색정당으로의 한계에 대해서는 한재각(2007)을 참조.

간의 연구과제를 포함했고 2005년에 일단락되었다. 2005년 9월 민주노동당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정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이 도전합니다”라는 구호 하에 아토피 스태프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민주노동당, 2005b).

민주노동당이 겨냥하고 있는 모든 중요의제를 묶어주는 데 아토피가 완벽한 의제라는 이들의 확신은 3회의 정책 워크숍과 11개 지역 46개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역학·환경 조사 등을 통해 강화된 듯하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공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환경안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보건의료,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통합으로서 환경보건정책, 나아가 위협한 먹거리를 강요하는 WTO 등 새로운 정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토피는]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무수한 과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이 이들의 일성이었다. 환경오염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아토피의 상징성은 더욱 컸다. “아토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선언했다. “환경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어린 아이들이 겪게 될 위험”을 아토피가 상징한다는 것이었다(민주노동당, 2005a).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들이 수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이들의 신념을 복돋운 것으로 보인다. 이 국민 환경의식조사는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임을 보여주었다. “귀하는 정책결정자들이 경제나 사회 문제 등을 결정할 때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심각하게 혹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96.5 퍼센트를 나타냈다. 80% 대를 나타내는 유럽 쪽의 경우보다도 뚜렷이 높은 이런 인식은, 역시 조사결과 드러난 한국의 환경상황에 대한 극도의 우려를 반영했다. 전체 응답자의 58.8%가 “환경오염이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33.7%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서울지역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69%나 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응답자들이 환경정보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전문가도 정부도 아닌 환경단체였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는 유럽의 경우도 비슷하게 높았지만 한국의

경우 두드러지는 점은 전문가에 대한 낮은 신뢰였다. 지방자치단체나 언론보 다도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한길리서치연구소, 2005; 단병호·시민환 경연구소, 2005). 이 점이 왜 민주노동당이 전문가들로부터는 환경과 아토피 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서도(민주노동당, 2005b), 아토피를 중심으로 환경보건 입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한다.

민주노동당은 자당의 아토피 스탓 프로젝트가 언론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는데 프로젝트 중 언론노출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것은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벤트였다. 민주노동당은 전문가 대신 ‘평범한’ 아토피 엄마를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 부채를 지적하는 국정감사의 증인 으로 초대했다. 전문지식보다 경험지식이 더 정책결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 는 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 셈이다. 단병호 의원은 자신에게 할애된 시간 전부를 다섯 살 아토피 아이의 어머니인 김자경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자경은 적절한 감정적 호소를 섞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이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절절한 호소와 특히 잠깐의 여행 중에 아이의 병이 아주 호전을 보였던 캐나다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아토피 때문에 태어나 자란 모국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바꾸겠다는 ‘아토피 이민’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의 표현으로 보였다.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 개선 정책 등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녀의 당부였다(연합, 2005. 10. 10).

5. 환경보건법, 2008 - 녹색 한국

민주노동당의 아토피 의제는 성공적이었다. 정치적 파장도 컸고, 정부 측의 정책적 대응도 비교적 빠르게 끌어내었다. 환경부는 사실 1998년 내분비계장 애물질로 인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때부터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검토 압력을 받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환경부, 1998). 2004년 환경보건정책과를 신설하고 200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보건을 포함한 것도 그런 결과였다.¹⁸⁾ 환경부가 2005년의 국정감사에 대해 환경보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곧바로 국회에 한 것은 이런 내부적 준비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6년에는 더 공식적으로 “환경보건법안” 제정 계획을 공개했다. 정치계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확산도 급속히 일어났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아토피 공약의 매력은 입후보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토피 프리 서울” 등의 구호가 경쟁적으로 내걸어졌다(조선일보, 2006. 4. 24; 한겨레, 2006. 5. 3, 4).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가 캠페인을 통해 아토피 공약을 공개 요청함으로써 선거 쟁점화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07. 12).

2007년 10월 단병호 의원이 이끄는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가 잇따라 발표한 환경보건법안은 아토피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단병호 의원의 국회안과 환경부가 낸 정부안에 큰 차이는 없었다. “아토피 엄마”들의 민원이 상당했음을 고백한 환경부안이 단병호안에 비해 오히려 ‘아토피보건법’으로의 성격을 더 드러냈다. 환경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집단에 어린이 밖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단병호안은 산업단지주민과 같은 집단도 위험인구로 명시했었는데, 결국 둘의 합의안에는 어린이·노약자, 산업지대나 폐광산지대 주민 등이 포함되었다. 또 아토피 스태프 프로젝트를 통해 아토피를 환경병으로 단정하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주저를 잘 인식했던 이유인지 단병호안은 환경 질환을 환경성 질환과 환경관련 질환으로 나누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규제가 필요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정의까지 담고 있던 단병호안도 핵심

18)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집증후군 문제의 공론화와 이후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 장하원의 연구는 SBS의 다큐멘터리 방영 등으로 불거진 새집증후군의 문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도 환경부 내에 환경보건이라는 의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장하원, 2010).

은 아토피 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차이가 크지 않던 두 법안은 다음해 2월이면 합의안을 만들게 되고 3월에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신속한 통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아토피를 둘러싼 정치적 동력과 압력이 거셌다는 것이 물론 첫 번째 이유이다. 아토피 엄마들을 적으로 삼고 싶은 정치세력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를 서로 자신들의 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영역 싸움이 거셌다(여성환경연대, 2008; 보건복지부, 2008). 두 개의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초대된 환경보건과 예방의학의 전문가들 중 환경보건법안의 입법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사실 이런 쉬운 합의의 두 번째 이유는 법안의 성격을 반영한다. '사전에방원칙'을 앞세워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환경위험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의 '선진성'을 강조했다지만 사실이 사전예방원칙으로 당장 환경규제에 큰 변화가 올 분야는 없었다.²⁰⁾ 정부가 당장 실천에 옮길 부분은 대부분 앞으로의 행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환경관련 질환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접근은 공기, 흙, 물과 같은 매체 중심에서 인간과 생물이라는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초를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선진성'을 보인 것으로 선전되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3년 마다 한 번씩 수행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집단적 생체모니터링일 수도 있었다.²¹⁾ 환경보건 관련규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모두

19)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환경보건 피해 사례 보상과 처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보다 큰 차원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20) 사전예방원칙은 199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도입되었는데, '과학적 검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해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정책적 대응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사전예방원칙은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사전예방원칙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Lavidow(2001) 참조.

21) 규제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Daemmrich(2008) 참조.

아토피 어린이를 향하고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규정한 유치원·학교 등에 대한 공기질 규제와 “어린이 용품”인 장난감·학용품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명시되었다. 이러한 규제 시도에 대한 반대가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부분이 기존 실내공기질관리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의 내용을 “어린이 보호”를 내세워 종합한 데 불과함을 반영한다. 법안의 ‘1조(목적)’에서 내세우듯 이 법안의 목적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감시함으로써(강조는 필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중심이었다. 법 시행을 위해 할당된 76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고려하면 아토피 관련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위해 ‘고작’ 2억도 빼낼 수 없었던,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불과 2년 전의 불평을 생각할 때 상당한 승리였지만,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한 환경부의 승리인지, 의정활동의 실적을 올린 민주노동당의 승리인지, 아토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했던 아토피 엄마의 승리인지는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한겨레, 2006. 2. 2; 환경보건법안, 2008).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 수립은 “기존 환경정책의 큰 틀의 변화이자 발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는 자부심도 보였다(환경부, 2006). 2008년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3차 어린이 건강환경 컨퍼런스를 부산에 유치했는데, 환경부의 오종국 환경보건정책관은 이 회의가 “한국의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진적 법안을 널리 알려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에 대한 지도력을 보이겠다는 것이었다(오종국, 2008). ‘녹색 한국’을 내세우고픈 열망이 결국 다양한 아토피 지식활동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에 ‘환경보건법’이란 결말을 주도 록 도움을 준 셈이다.

6. 결론: 세계화 시대 지역적 활동의 지역성: 무엇이 한국적인가?

세계화 시대의 한국에서의 지식활동과 정치활동이 아토피에 대한 '한국적' 이해와 대응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각 집단이 한국의 모습을 얼마나 달리 그리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지 보여주었다. '아토피 산업'의 분출도 환경보건법의 탄생도 모두 이러한 다양한 꿈들의 현실적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한의학계의 대응이 서양의학계의 대응보다 더 한국적일 것도 없듯, 어떤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국제적 규제 혹은 지구적 자본의 논리라는 세계화의 요소, 생태적 반세계화라는 또 다른 세계화의 요소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환경 분야에서 한국에서 형성된 '아토피 = 환경병'의 등식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 속에 형성된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의 활동과 그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적일 뿐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해서 이 계속 되먹여가며 진화하는, 이 역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자연적' 질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에 덜 한국적인 점은 없다. 이 논문은 철저하게 한국적인 이 이야기로 정책과정과 같은 제도적 과정에 '아토피 엄마'와 같은 이들의 대중적 지식활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려 했다. 하지만 가장 한국적일 수 있는 이 역사적 주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한국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역사·문화적 상황이 만들어낸 우연 이랄 수 있다. 결론으로 아토피를 대표적 환경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등장했던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의 활동을 요약하며, 이러한 역사의 우연이 서로 맞물려서 필연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아토피 이해와 대응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자.

우선 뒤늦게야 썩라면 스캔들과 함께 한국에 상륙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빼놓을 수 없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해왔지만 제대로 된 문화적 번역과 전달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한국땅에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일단 '전달'이 일어나자 내분비계장애물질은 환경호르몬이란 별칭으로 상

당히 눈에 띄는 삶을 살게 된다. 환경호르몬은 현대의 편리한 플라스틱 문명이 갖는 위험, 특히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상징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호르몬의 위험과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건강문제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었다. 의학계는 세계수준에 이른 의학연구의 표준화된 특성을 보여주며 세계 의학계가 질문하고 검증하는 문제들에 주로 집중했다. 그에 비해 한의학계는 '현대병', '선진국병' 아토피를 서양의학에 대항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자신들의 '한국적' 전통을 내세우고, 경쟁자인 서양의학을 비판할 좋은 계기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된 한의학계의 전통 재발견에 면역이상 아토피는 '서양' 의학적 접근에 대한 이들의 근본적인 비판을 더 효과있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몸과 환경의 관계를 무시하고 쉬운 해결책을 약속해 약물과용을 낳는 현대의학의 폐해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한 많은 아토피 어머니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다. 한편 아토피 어머니들은 속 시원한 답이 없는 전문가들 대신 직접 자신과 아이들의 고통을 설명해줄 이야기를 찾아왔고, 한 어머니의 일본 생활경험이라는 우연의 도움도 받아 환경호르몬과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아토피와 연결시켰다. 약물 대신 이들은 환경호르몬을 기준 삼아 자신들의 생활습관을 재점검했다. 먹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유기농 생협이 대안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생태적'이고 '정치적'인 소비는 유기농 생협 운동에도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한 연대는 '한국적' 정치양태를 비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신진정당 민주노동당의 연대도 끌어오게 된다. 전문정치인에 의한 아토피 의제화는 이미 아토피 엄마들의 지식활동으로 사회문제화된 환경병 아토피를 정치와 정책과정의 중심으로도 밀어넣었고, 이 '한국적 개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녹색 한국적' 답은 신속하게 탄생한 환경보전법이 되었다. 아토피가 '생명없는 개발'로 인한 성과만을 내세우는 한국의 수치라는 문제제기에 정부는 한국적 선진성의 상징이 될 환경보전법을 내어놓은 셈이다.

세계화 시대 모든 지역적 활동이 전세계의 동일화가 아닌 더 강한 지역성의 표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더해 그 지역성이 어떻게 각 사회의 이질적 꿈들의 긴장관계를 통해 얽히어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던 이 논문은 또한 환경규제와 같은 규제수립 과정에 있어서 대중적 지식·정치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환경규제는 다수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국제적 규제가 수입되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강한 국제성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한 사회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정치적 역학이 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 보인다. 성진이의 아토피 경험에서 드러나듯 아토피와 환경의 긴밀한 연관관계는 어떤 환경전문가나 의학전문가가 알려준 것이 아니다. 대안전문가들도 지지는 보냈지만 주역은 역시 아토피 엄마들이었다. 아토피를 환경문제로, 사회문제로, 다시 정치의제로 만드는 과정에 ‘아줌마 파워’를 발산하는 아토피 엄마들의 지식활동은 결정적이었다. 이들의 공헌은 의제가 되기를 경험하는 수많은 환경·건강·사회문제 중에서 아토피를 부각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의 정치적 소비활동이 다양한 대안적 삶을 꿈꾸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정치적 연대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긴 했겠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아토피에 대한 대안적 이해는 법안의 내용도 상당부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위험에 대한 이 정책과정은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환경위험의 규제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제도적 메커니즘만큼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다수 주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도적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 연구지만,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역사적 역동성의 작용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 연구』, 제13권 제2호, pp. 143-165.
- 권현조 · 김연정 (2006),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국내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4권 제2호, pp. 137-140.
- 김록호 (1998),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과 인류의 미래」, 『대한의사협회지』, 제41권 제10호, pp. 1039-1047.
- 김소형 (2004), 『아토피 아가 애기똥풀 엄마』, 이미지박스.
- 김영한 (2007), 『지후맘의 베이비 바이블(임신출산대백과)』, 김영사.
- 김충희 (2005), 『아빠 가려워(아토피 육아기)』, 청년사.
- 김홍석 (2006), 「진보정치가 녹색정치를 만나다」, 『환경과 생명』, 제50권, pp. 160-166.
- 꿈지모 (2003), 『꿈꾸는 지렁이들』, 환경과생명.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2000),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 시공사.
- _____ (2002), 『우리 집에서 아토피를 잡는 99가지 방법』, 시공사.
- _____ (2004),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2』, 시공사.
- _____ (2005), 『광용아 햄버거 맛있니』, 랜덤하우스코리아.
- 단병호 (2005), 「2005년 국민환경의식 조사보고서: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집 3」, 단병호 의원실.
- _____ (2007a), 「환경보건법안 (7620)」, 단병호 의원실.
- _____ (2007b), 「환경보건법안은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및 환경보건법안 평가 토론회.
- 마키세 · 허정구 (2008), 『아토피 바이블』, 한국학술정보.
- 문희범 (1994), 「알레르겐과 아토피」, 『대한알레르기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10-18.
- 미야니시나오코 외 (2000),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50가지 방

법』, 삼신각.

민주노동당 (2005a), 「생활의제의 중심: 아토피 STOP 프로젝트」.

_____ (2005b), 「아토피 STOP 프로젝트 심포지엄 자료집」.

박명숙 (2009), 「환경호르몬 대 성장호르몬」, 『작은 것이 아름답다』.

_____ (2010), 방문인터뷰 (2010.04.27)

박상신 (2004), 「생활협동조합운동 15년 (1987~2002)」, 『시민운동연감』, 서울: NGO Times.

박용신 (2004), 「천인상응 사상 - 환경오염과 한의학」,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 시민환경백서』, pp. 53-57, 나남출판사.

박창근·박천옥 (2007), 「유, 소아기 아토피피부염이 환아의 삶의 질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5권 제5호, pp. 429-438.

보건복지부 (2007), 「천식·아토피 질환 극복, 정부가 앞장선다」.

부산일보 (2008.6.5), 「[기고] WHO 어린이 건강환경 컨퍼런스를 앞두고」.

산지킬러 (2005), 『의사도 못 고치는 아토피 아토피안이 고친다』, 이한출판사.

양성완 (2003), 『한방으로 잡는 아토피 피부염』, 시공사.

여성환경연대 (2008), 「아토피 없는 나라 만들기 정책 심포지엄」.

연합통신 (2005.10.10), 「[국감] 주부참고인 '아토피 심각성' 호소」.

오마이뉴스 (2007.11.6), 「[아토피 Zero 세상을 열자①] 여는 글-어린이 4명중 1명이 앓는 '국민병」.

오마이뉴스 (2007.12.14), 「어떤 후보 당선돼야 우리 아이 몸 덜 고통일까」.

우석훈 (2005a), 『아픈 아이들의 세대』, 뿌리와이파리.

_____ (2005b), 『음식국부론』, 생각의나무.

이상진·변대규 (1993), 「경기도 부천시 공립 유치원 학동들의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율과 동반되는 보조 피부 증상의 빈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p. 394.

장하원 (2009), 「새집증후군 배상 판결 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분쟁조정 특성」, 『과학기술학연구』, 제9권 제1호, pp. 57-90.

- 조선일보 (2001.7.4), 「안방서 사회활동 아줌마 네티즌 사이버 세상 '여인천하」.
- 조선일보 (2002.5.16), 「막강 아줌마 파워 -아줌마가 경제를 움직인다」.
- 조선일보 (2003.11.5), 「쌍둥이 아빠 이종훈의 한방 육아」.
- 조선일보 (2006.4.24), 「SMART 바른 선거 바른 선택: 한나라 서울시장 예비후보 3人 공약 첫 SMART 평가」.
- 조선일보 (2006.5.19), 「5.31지방선거 관심지역 [수원시장]」.
- 진현우·장호선 (2005),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대체의학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3권 제7호, pp. 903-911.
- 청뇌체질의학연구소 (2002), 『손을 묶을까 아토피를 묶을까』, 시유사.
- 최민희 (2001a), 『작은 것이 아름답다』, pp. 88-91, 녹색연합.
- _____ (2001b),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개정판)』, 21세기북스.
- _____ (2002), 『해맑은 피부를 되찾은 아이』, 문화유람.
- 테오 콜본 외, 권규복 번역 (1997), 『도둑 맞은 미래』, 사이언스북스. [Theo Colborn, et al. (1996), *Our Stolen Future*, Plume.]
- 통계청 (2009), 「KOSIS 국가통계포털」.
- 편복양 (2005), 「영유아 아토피피부염의 위험 인자」,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제15권 제3호, pp. 235-237.
- 한겨레신문 (2004.12.3), 「민연련 20년, 최민희의 20년!」.
- 한겨레신문 (2006.2.2), 「우리사회 민주주의는 과학기술 앞에서 멈춰서죠: 권은정의 인터뷰 무제한/한재각 과학기술 시민운동가」.
- 한겨레신문 (2006.5.3), 「[선택 5·31] 서울시장 후보 공약 집중비교」.
- 한겨레신문 (2006.5.4), 「경기지사 후보 공약 집중비교」.
- 한겨레신문 (2008.1.24), 「청정마을 진안서 '아토피와 이별해요~」.
- 한겨레신문 (2008.12.22), 「자연요법 2년, 아토피 뚝: 김진경 원장의 '딸아이 아토피 치료기」.
- 한길리서치연구소 (2005), 「2005년 국민환경의식 여론조사 보고서」.
- 한살림 (1991), 『우리밀의 슬픈 역사』, 한살림.

한재각 (2007), 「한국에서 적녹연대는 가능한가」,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pp. 315-322, 후마니타스.

한재각 · 장영배. (2009), 「과학기술 시민참여의 새로운 유형: 수행되지 않은 과학하기」, 『과학기술학연구』, 제9권 제1호, pp. 1-31.

홍천수 (1995), 「우리나라에서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는가?」, 『대한알레르기학회지』, 제15권 제3호, pp. 300-303.

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환경부 (2005), 「환경보건정책법」.

_____ (2006a), 「환경보건법안 입법계획」.

_____ (2006b),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보고서」.

_____ (2008), 「환경보건법 2008」.

_____ (2009), 「국내 PCBs 함유(액상)폐기물 기준 검토 토론회 개최」.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http://www.asamo.or.kr>

「더불어 사는 세상 한 살림」, <http://www.hansalim.or.kr>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_____ (1995),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 Cambridge: Polity Press.

Begley, S. (2009), "When Studies Collide", *Newsweek*, Vol. 53, No. 26, p. 28.

Berkson, L. (2001), *Hormone Deception*, McGraw-Hill Professional.

Daemmrich, A. (2008), "FORUM - Risk Frameworks and Biomonitoring: distributed regulation of synthetic chemicals in humans", *Environmental History*, Vol. 13, No. 4, pp. 684-694.

Jasanoff, S. (2005), *Designs on N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sanoff, S. and Martello, M. L. eds., (2004), *Earthly Politics: local and global in environmental governanc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Krimsky, S. (2000), *Hormonal Chaos: The Scientific and Social Origins of the Environmental Endocrine Hypothesi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Harvard University Press.
- Leach, M., Scoones, I. and Wynne, B. (2005), *Science and Citizens*, ZedBooks.
- Levidow, L. (2001), "Precautionary Uncertainty: Regulating GM Crops in Europ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31, No. 6, pp. 842-874.
- McGeady, S. J. (2004), "Immunocompetence and allergy.", *Pediatrics*, Vol. 113, No. 4, pp. 1107-1113.
- Miyake, Y. et al. (2004), "Was the prevalence of Japanese childhood atopic eczema symptoms overestimated in the ISAAC study?", *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Vol. 113, No. 3, pp. 571-572.
- Murphy, C. M. (2006), *Sick Building Syndrome and The Problem Of Uncertainty*, Duke University Press.
- Nash, L. L. (2006), *Inescapable Ecologies: A History of Environment, Disease, and Knowled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ECD (2004),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2004*, Paris: OECD.
- Underwood, A. and Kuchment, A. (2008), "The Chemicals Within", *Newsweek*, Vol. 151, No. 5, pp. 50-53.
- Williams, H. et al. (1999), "Worldwide variations in the prevalence of symptoms of atopic eczema in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Vol. 103, pp. 125-138.

논문 투고일	2010년 05월 04일
논문 수정일	2010년 06월 05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0년 06월 19일

Atopic Dermatitis and the Making of an Environmental Disease in Contemporary South Korea

Jung Lee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reated a specific understanding of and responses to atopic dermatitis(AD) in Korea. AD hardly has a status of an environmental disease in other societies but it is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disease in South Korea in connection with various environmental pollutants, most notably with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This understanding of AD as an environmental disease led to an unprecedented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of 2008, a broad environmental health law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focus on human aspect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line with the growing body of works that articula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culture in regulatory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both the understanding of and the regulatory responses to AD owe greatly to the knowledge and political practice of the public, especially that of the ‘Atopy moms’. Their knowledge practice that creatively appropriated scientific uncertainty regarding AD brought unexpected epistemological and political alliances, respectively with alternative medicine and with organic coop movement and an emergent political party and generated enough dynamics for the legislation of the EHA.

Key Terms

Atopic Dermatitis, Knowledge Practices from below, Risk Regulation, Environmental Risk,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